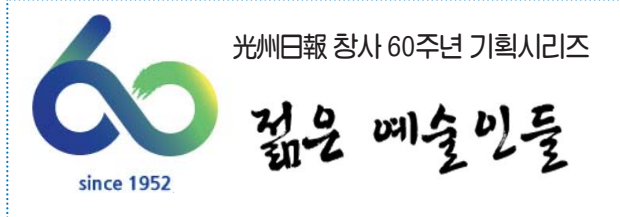


“점과 선으로 한국의山河 그려요”



(9) 한국화가 정광희

“버리고 버리는 것이 서예의 미학이다.” 지난 3일 화순군 동면 북암리 옛 경복초등학교를 찾았을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폐교를 개조해 만든 작업실에서 난로를 지피고 있었다. 뒷산에 날리고 날린 게 나무라고 했다. 날씨가 추우면 간벌을 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나무를 주어다 때면 되고, 더울 땀 창문만 열어도 부러울 게 없다고도 했다. 발등은 나무를 하다 다친 상처로 성한 곳이 없었다.

한국화가 정광희(42)씨. 그가 도심을 버리고, 지난 2007년 이곳으로 작업실을 옮긴 건 ‘버리기 위해’서다. 동북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은 차보다 새가 더 많이 지나갈 정도로 한적하다. 뒷산이 넉넉하게 폐교를 안고 있고, 멀지 않은 곳에는 잘 다듬은 산수화 같은 앞산도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는 이곳에서 ‘아는 것 잊어 버리기’를 주제로 추상을 결합한 독특한 수묵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두꺼운 장지를 일정하게 접은 뒤 그 위에 굵직한 붓질로 추상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대신 여백을 강조했고, 자연스러운 먹의 번짐이 은은한 멋을 내는 작품이다.

나무에 한지를 씌워 다림질을 한 뒤 다시 한지를 일일이 이어붙여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다. 대부분 그의 작품은 대작이며, 하루 8시간씩 꼬박 한 달을 걸러 3m 크기의 작품 하나를 만들고 있다.

드로잉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여타 작가와는 달

리, 그는 표현하려는 대상과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오려서 공중에 펼쳐놓고 작업을 한다. 여백과 대상의 긴밀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이 주는 느낌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의 작품의 뿌리는 서예다. 고향 고흥에서 한학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붓을 처음 들었고, 20살 때 본격적으로 서예를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서예의 정신은 “군더더기 없고, 은유적이고, 멀리서 바라

림이 모두 사라지고, 대나무에 붉은 종이와 점·선만 남아있었다. 겹쳐진 합죽선의 모습은 마치 추상화처럼 생략과 여백만 가득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아는 것 잊어버리기’다. 산수화의 틀, 여백과 대상의 관계는 사라지고 명료한 점·선·여백만 남는 것이다. 미학이나 철학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자연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끼면 된다.

“한국화뿐만 아니라 지역 화단에서 추상 회화가 별로 없어요. 직접적으로 산과 강을 묘사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점 합죽선의 단면을 보면서 산과 강을 다양하게 상상하는 재미를 주고 싶어요.”

그는 소처럼 우직하다. 선 하나를 그어도 되새김질하듯 고민을 거듭한다. 잡념이 들면, 뒷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산책을 한다. 그가 말하는 자연은 ‘경중이 없는 것’이다. 서예의 글씨와 여백이 하나 이듯 자연에는 주인공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하늘도 산의 경계가 없으면, 보는 사람이 높다는 느낌을 갖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감각적인 작품이라도 조화롭지 못하면 감동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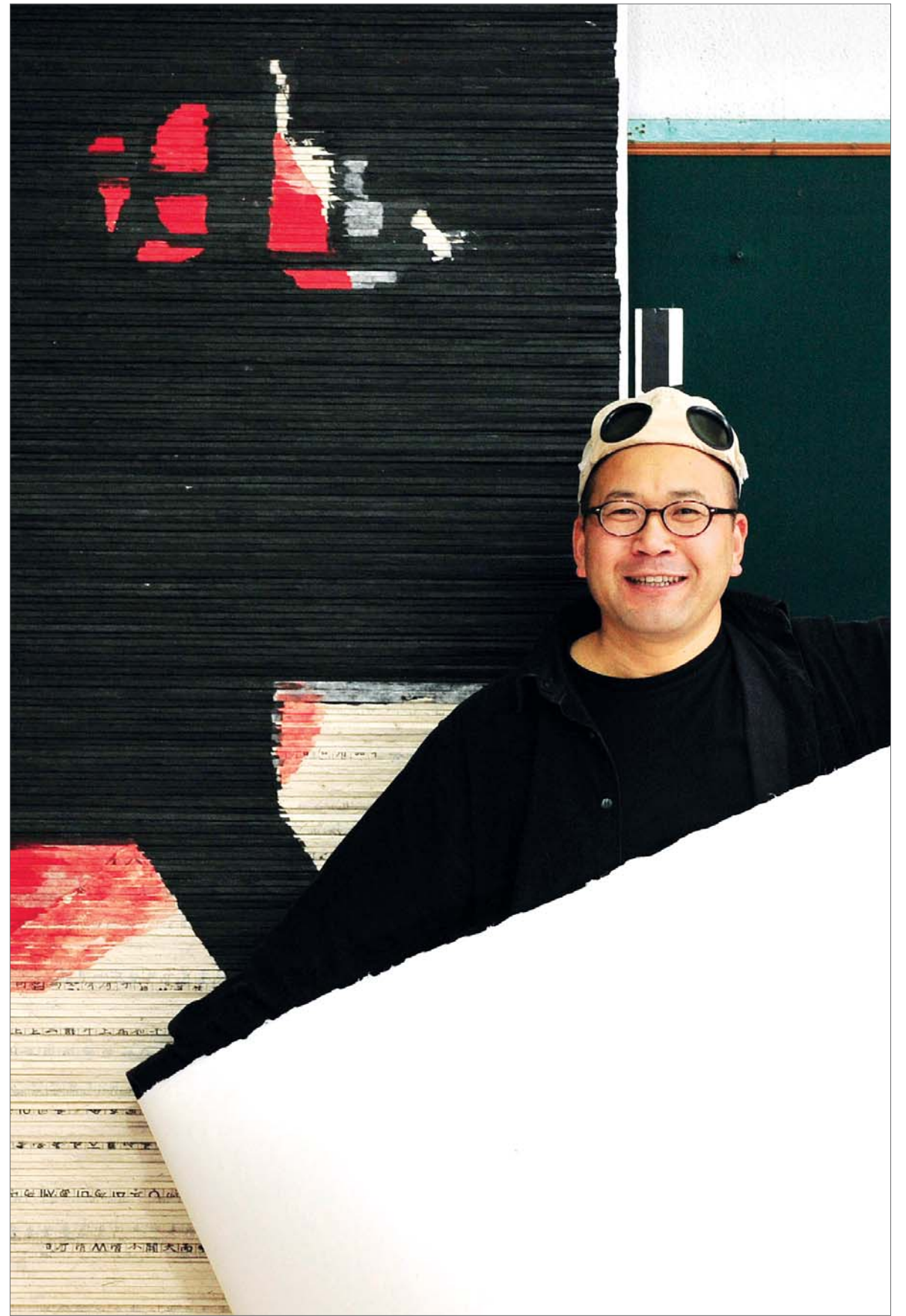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해외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독일 쾰른아트페어와 한·두바이 외교 30주년 기념 전 등의 전시회 출품한 그의 작품은 “새롭다”는 평을 받았다.

옛 교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의 작업실에는 칠판이 하나 있다. 칠판에는 최근 작업실을 찾은 그의 한 친구가 추이에 젖어 ‘떠든사람 정광희’라고 쓴 분필 글씨가 남아 있다. 그는 이전 제대로 떠들어 볼 요량이다.

올해부터 3m 크기의 작품 30점을 창작해 서울과 해외 화단에 소개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립미술관 등에서 4월 28일부터 60일간 개인전도 연다. 이를 위해 서울에 조그만 작업실도 낸다.

“추상 한국화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감각과 한국적인 것을 버무린다면 국제 미술계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확신해요. 스스로 증명해야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지를 겹친 뒤 추상 한국화를 그리고 있는 정광희씨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한지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지 접어 붓질로 사물의 형태 단순화
獨 쾰른아트페어 등서 “새롭다” 호평
올부터 3m 크기 30점 창작 해외 소개
4월28일부터 옥과서 60일간 개인전도

본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모습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서예를 볼 때 글씨만 보는데, 아무 흔적도 없는 여백 또한 하나의 글씨라는 생각을 해요. 서예는 글씨와 여백이 만들어 낸 또 예술인 셈이죠. 잘 쓴 글씨는 식상해요. 불수록 매력을 발산하는 글씨가 진짜 서예입니다.”

서예와 수묵화를 고집하던 그가 추상 한국화로 눈을 돌린 건 우연이었다. 지난 2002년 합죽선에 그려진 산수화를 들여다보던 그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펼쳐진 합죽선을 접으면 아름다운 그

정광희를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내면 함축해 표현...비움과 채움이 작품철학

▲추상회화와 우리 것

선(線)의 표현 양식으로서 가장 발전된 예술인 서예는 그 어떤 선보다도 동양의 정신성과 예술적 조형성을 밀도 있게 함축하고 있다. 나는 이런 서예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 현대적 시제에 부합한 추상회화로 우리의 정신성을 나타내는 작

▲비움과 채움

업하고자 한다.
나의 작업은 비움과 채움으로 이뤄진다. 음과 양인 것이다. 하지만 비움과 채움에서 무엇이 음이고 무엇이 양인지는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움과 채움이 경우에 따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면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뒤바뀌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검은 필선이 채움으로만 꼭 비취치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백의 공간이 비움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론 비운 것도 아니고 채운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정중동과 같은 의미다. 여기서 비움과 채움을 통해 생명의 순환을 말하고자 한다.

▲단순함

많은 것을 그리는 것보다 단순함을 좋아한다. 지나치게 길모습만을 포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함축을 통한 보이지 않은 곳에 있는 그 거대한 에너지를 그리려고 한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존재 가치가 다양하게 해석되어진 단순함을 찾아 자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날 자연을 바라본다.

▲정광희는

- 호남대 미술학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에서 서예와 한국화 전공.
- 가나아트 스페이스, 닥터갤러리, 광주신세계 갤러리 등에서 5차례 개인전.
- 한-두바이 외교 30주년 기념전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타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폐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적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